

첫 번째 이야기: 학교에서 교사가 제시하는 문제를 쉽게 풀면서도 가정이나 일상생활 속에서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 이런 아이들은 결국 자신이 학습한 지식(선행학습)을 새로운 장면(후속학습)에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이(transfer)란 이전의 장면에서 학습한 지식을 새로운 문제 장면에 가져오는 것, 이전에 학습한 것이 현재의 학습에 영향을 주는 현상을 말한다. 따라서 전이는 학교 교육이 추구하는 중요한 목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즉, 수학시간에 사칙연산을 배움으로써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산 뒤 잔돈을 정확하게 거슬러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중략) 결국, 전이란 학교 교육의 효과를 평가하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패권을 쥔 어법

- ‘징후가 없는 언어 사용’이 바로 ‘패권을 쥔 어법’입니다. 그 어법은 그 사회의 ‘객관적인 언어 사용’입니다.
- 즉 어떤 주관적인 의견이나 개인적인 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개인의 감정이 들어가 있지 않은 가치중립적인 의미에서 사용하는 언어 사용을 말합니다.
- 롤랑 바르트는 이처럼 가치중립적으로 보이는 어법이 포함한 ‘예단’과 ‘편견’을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 가치중립적인 어법 속에는 그 사회집단 전원이 무의식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예컨대 근대, 신자유주의, 심리주의)가 깃들여 있다.

패권을 쥔 어법의 실례

- 무조건 만남이 많아진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관계로 이어지는 건 아닌 것 같다.
- 육아 휴직 시절의 외로움이 준 교훈을 가슴에 새긴 나는 만남에 열중하기 시작했다. 주로 아이 친구 엄마들과의 만남이 많았다.
- 그런데 어떤 엄마(결국 아이 친구의 ‘엄마’일뿐 내 ‘친구’가 되지는 못했던)를 만나고 오면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이 자라났다.
- 특히 육아나 자녀 교육에 정통한 엄마들을 만나고 올 때 그 불안은 강도가 높아졌다.

패권을 쥔 어법의 실례

- 유능한 그들에 비해 뭐 하나 아이에게 제대로 해주고 있지 않은 내가 심각한 직무 유기 상태로 느껴졌다. 같은 고민을 나누고 헤어졌는데 고민이 더 커져 버리는 것이다.!

패권을 쥔 어법의 실례

- 그건 우리가 속엿말을 나누고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하는 이야기를 대신해서 떠들고 왔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 방송이 하는 말, 인터넷이 하는 말, 광고가 하는 말들 속에 계속해서 나를 노출시키다 보니 어느 순간 그 말이 내 맘인 줄로만 알아 버린 것이다.

패권을 쥔 어법의 실례

- 우리는 맘에 있는 말을 나누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남의 말을 나누고 돌아온 것이다.
- 그리고 그 남의 말의 핵심은 ‘돈을 써라’로 요약될 수 있다.
- 남이 한 말을 내 말인 줄 알고, 남이 내게 심은 욕망을 나의 욕망인 줄로 착각하면서 나누는 대화 속에서 불안이 싹트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일 아니겠는가. (박현희-백설공주는 왜 자꾸 문을 열어줄까, 2011, pp143-144)

관계가 결핍된 자리는 소비로 채워진다

- 아이 엄마들에게 많은 친구가 있다면, 그를 둘러싼 수많은 관계망들이 살아 있다면, 아마도 많은 사업체들이 도산할 것이다.
- 가끔씩 필요한 물건은 서로 빌려 쓰고 돌려쓰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렇게 되면 한순간 필요한 육아 용품에 그만큼 많은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
- 또 필요할 때 아기를 봐주며 서로에게 시간을 벌어 준다면 아이 엄마들은 영혼을 달래는 일에 자기 시간을 쓸 수 있을 것이다.

관계가 결핍된 자리는 소비로 채워진다

- 영혼이 풍요로워지면 정신의 허기를 메우기 위해 인터넷 쇼핑에 매달리는 일도 줄어들겠지.
- 아이를 다 키운 나이 많은 친구가 생기면 지금 내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걱정들이, 사실은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라는 것을 일깨워 줄 것이다.
- ‘한글나라’가 없어도 아이들은 때가 되면 글자를 깨칠 수 있고, ‘델타샌드’가 없어도 놀이터 모래밭에서 신나게 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관계가 결핍된 자리는 소비로 채워진다

- 그러면 우리 아이를 천재로 만들어 주는 교재들을 세트로 사들이는 일의 어리석음도 함께 깨치겠지.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친구가 없다.
- 현대 사회에서 관계가 결핍된 자리는 소비로 채워진다.
- 예전에는 관계가 해결해 주었던 많은 일들은 돈으로 해결한다.
-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구를 가르쳐 주던 시절은 끝났다.
- 아이들은 돈을 내고 축구 교실에 등록한다.

관계가 결핍된 자리는 소비로 채워진다

- 아버지는 바쁘고 아이들은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 그러나 그 이면에는 축구 교실 보낼 돈을 벌려면 부모가 더 바빠져야 하고, 바쁘다 보니 관계는 더 많이 결핍되는 악순환이 도사리고 있다.
- 관계의 결핍이 소비로 이어지는 일들은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발견된다.
- 예를 들어 우리에게 왜 계속 새 옷이 필요한가. 옷장에는 옷이 차고 넘치는데 왜 또 새 옷을 사고 싶을까?

관계가 결핍된 자리는 소비로 채워진다

- 멋진 새 옷의 용도는 두 가지이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만족스럽기 위해서.
-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새 옷의 용도를 생각해 보자. 멋진 새 옷을 차려 입고 잘 보이고 싶은 상대는 누구인가?
- 나와 알고는 지내되 그 관계의 깊이가 부족한 경우가 아닐까?
- 우선 생판 모르는 이. 나와 전혀 관계없는 이에게 잘 보이고 싶을 리는 없을 것이다.

관계가 결핍된 자리는 소비로 채워진다

- 그리고 나를 진정으로 뺏속까지 잘 아는 사람과 마주할 때도 멋진 새 옷은 필요 없다.
- 진짜 친구는 내 옷이 아닐 나를 볼 테니까. 내가 무릎 나온 바지를 입고 있어도, 보풀이 올라온 낡은 스웨터를 입고 있어도, 십 년째 같은 외투를 입고 그 친구를 만나도, 그 친구는 옷이 아니라 나를 봐 줄 것이다.
- 내가 만족스럽기 위한 경우는 어떤가? 진정 행복감으로 충만해 있다면 구태여 새 옷은 필요 없다.

관계가 결핍된 자리는 소비로 채워진다

- 나는 이미 행복 자체로 빛나고 있을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 그런 나에게는 거울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 그러니 좋은 친구가 있고 내 영혼이 충만해 있다면 내게는 새 옷이 필요 없다. 상표 값으로 한 재산 털어야 하는 비싼 새 옷은 더더욱 필요 없다.
- 그런데 내게는 관계가 결핍되어 있다. 그러니 지갑을 연다.

관계가 결핍된 자리는 소비로 채워진다

- 문제의 심각성은 이 결핍이 아이들에게도 이어진다는 것이다.
- 내가 가르치는 고등학생들에게 경제 수행 평가로 ‘돈 없이 살아 보기’ 체험을 해보게 하였더니 가장 큰 어려움이 돈을 쓸 수 없어 친구를 만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털어 놓는다.
- 돈이 없으면 친구도 못 만나는 것은 어른들의 얘기만은 아닌 것이다. 아이들은 부모의 삶을 복제하며 자라난다.(박현희 저: 백설공주는 왜 자꾸 문을 열어줄까 중에서)